

우리기업의 對인도 투자 트렌드 변화



CONTENTS

목 차

요 약 / 1

Ⅰ. 우리기업의 對인도 투자진출 현황 / 2

- | | |
|---|------------------------|
| 2 | 1. 인도의 외국인투자유치 동향 |
| 4 | 2. 우리나라의 對인도 투자 현황과 특징 |

Ⅱ. 우리기업의 對인도 투자의 트렌드 변화 / 6

- | | |
|----|-------------------------------|
| 6 | 1. 제조업중심에서 서비스 분야로 진출 분야 확대 |
| 12 | 2. 인프라개발붐을 활용한 인프라 분야 진출 |
| 15 | 3. 대도시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투자지역 확대 |
| 22 | 4. 기진출 대기업의 동시다발적 투자확대 전략 |
| 28 | 5. 단독투자 일색에서 벗어나 합작투자가 서서히 증가 |
| 32 | 6. 중견기업의 투자증가 |

Ⅲ. 결론 및 대응방향 / 34

※ 본 보고서에 소개된 사례는 각 사의 공개자료를 KOTRA에서 취합한 것이며 자료원 표기는 생략함

요 약

인도는 중국에 이어 2009년 개도국 중 외국인투자유치실적 2위국으로 (UNCTAD WIR 2010) FY2005년 이전만 해도 연 40억달러 ~ 60억달러 수준이던 외국인투자금액이 FY2009년에 사상 최대인 372억달러를 기록했다.

우리 기업의 인도 투자도 2007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인도가 유치한 전체 FDI금액 중 0.58%, 우리의 해외투자금액 중 1.2%에 불과하여 잠재력에 비해 부진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투자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투자 분야도 제조업에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투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인도의 투자환경 변화와 독특한 현지비즈니스 관행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트렌드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투자활동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기업의 對인도 투자진출 트렌드 변화>

- ① 제조업중심에서 서비스 분야로 진출 분야 확대
- ② 인프라 개발분야로의 적극적인 진출
- ③ 제조업투자대상지의 확대
- ④ 대기업들의 동시다발적 투자확대
- ⑤ 단독투자 일색에서 벗어나 합작투자가 서서히 증가
- ⑥ 중견기업의 투자증가

인도 경제의 고도성장과 내수시장의 급격한 확대 그리고 인도 투자환경의 성숙도를 감안할 때 인도에 대한 투자진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아직 인도에 진출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들은 인도 투자진출의 새로운 트렌드 점점을 통한 중장기적 인도 진출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일본에 이어 EU가 인도와 FTA체결을 추진하는 등 주요국의 인도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어 인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면서 투자기회를 선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 우리기업의 對인도 투자진출 현황

1. 인도의 외국인투자유치 동향

- 인도의 외국인 투자유치금액은 FY2005년¹⁾ 이전만 해도 40억달러 ~ 6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FY2006년 이후 급증함
- 외국인투자유치 누적총액은 1,898억달러이며, FY2009년에 사상 최대인 372억달러가 유치됨

<인도의 외국인투자 유치 추이(US\$ 억)>

연도	FY2006	FY2007	FY2008	FY2009	FY2010	누계
유치액	228	348	352	372	171	1,898

주: FY2010년은 2010년 4월~2011년 1월 기간 기준

- 對인도 주요 투자국은 모리셔스, 싱가포르, 미국, 영국 등이며 조세회피처인 모리셔스로부터의 투자유입이 많은 이유는 세금상 이점에 따른 것임
- 우리나라는 누계기준 제 16위 투자국으로 對인도 외국인직접투자의 약 0.58%를 차지하고 있음(7억4천만달러)

<인도의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현황>

[단위: US\$ 백만]

순위	국가	FY2008	FY2009	FY2010	FY2000~ FY2010 누계액	비중(%)
1	모리셔스	11,229	10,376	6,129	53,369	41.9
2	싱가포르	3,454	2,379	1,504	11,694	9.2
3	미 국	1,802	1,943	1,092	9,371	7.4
4	영 국	864	657	503	6,387	5.0
5	네덜란드	883	899	1,048	5,535	4.4
6	일 본	405	1,183	1,367	5,082	4.0

자료: 인도상공부 투자진흥정책국(DIPP)

1) 인도회계연도는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임

- 산업별로는 서비스(금융포함)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가 몰리고 있으며(전체 투자의 20.9%) 2009년 경기침체 이후에는 자동차 및 운송기기 분야와 건설 및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함

<인도의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현황>

[단위: US\$ 백만]

순위	분 야	FY2008	FY2009	FY2010	FY2000~ FY2010 누계액	비중 (%)
1	서 비 스	6,138	4,353	2,987	26,597	20.9
2	컴퓨터 SW/HW	1,677	919	708	10,644	8.4
3	통 신	2,558	2,554	1,332	10,262	8.1
4	주거 및 부동산	2,801	2,844	1,048	9,405	7.4
5	건설(도로포함)	2,028	2,862	1,006	9,059	7.1
6	자 동 차	1,152	1,208	1,191	5,788	4.5
7	전 력	985	1,437	1,033	5,680	4.5
8	야 금	961	407	1,011	4,141	3.3
9	석유/천연가스	412	272	541	3,120	2.5
10	화학(비료제외)	749	362	382	2,876	2.3

자료: 인도상공부 투자진흥정책국(DIPP)

- 외국인투자가 가장 활발한 지역은 뭄바이 인근으로 전체의 35%를 차지 (2000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의 누계기준)
 - 뉴델리 인근²⁾은 전체 투자의 19%를 유치하고 있으며 방갈로르(6%), 아메다바드(5%), 첸나이(5%), 하이데라바드(5%)가 뒤를 잇고 있음

2) 뉴델리시와 외곽 위성도시(노이다, 구르가온, 파리다바드, 가지아바드)를 포함하며 Delhi NCR(National Capital Region)로 표기됨

2. 우리나라의 對인도 투자 현황과 특징

- 본격적인 對인도 투자는 199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99년이후 침체되었다가 브릭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07년 이후 다시 활발해짐

<우리의 연도별 對인도 투자 현황>

연도	신고 건수	신규 법인수	신고금액 (백만\$)	신고건수	투자금액 (백만\$)
2003	27	11	21	40	16
2004	57	26	48	83	40
2005	75	33	112	116	91
2006	152	68	150	225	99
2007	205	85	328	350	294
2008	215	64	288	323	188
2009	125	44	341	213	241
2010	157	54	180	224	179
누 계	1,241	492	2,690	1,914	1,925

주: 누계액은 1983년부터 2010년까지의 누계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업종별로 구분할 때 제조업 투자가 대부분이며 2010년 누계기준으로 제조업 투자는 1,353건, 16억 2천만달러로 전체 투자건수의 70.7%, 투자금액의 84.1%를 차지
 - 인도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위주(53%)이고 인도로 들어오는 FDI도 상당부분을 서비스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과 상반

<우리의 대인도 업종별 투자 현황>

업종대분류	신규 법인수	투자 건수	투자금액 (US\$ 백만)	금액비중 (%)	건수비중 (%)
총 계	492	1,914	1,925	100	100
제조업	311	1,353	1,620	84.1	70.7
건설업	28	75	34	1.8	3.9
도매 및 소매업	52	196	161	8.4	10.2

운수업	12	43	8	0.5	2.3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	11	49	7	0.4	2.6

주: 2010년 12월까지의 실제투자 누계 기준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약 15억달러, 중소기업이 약 3억 9천만 달러로 대기업 위주의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음 (2010년까지의 누적 투자액 기준)
- 중소기업 투자인 경우에도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경우가 많아 순수 독자진출은 많지 않은 편

<우리의 대인도 투자자 규모별 투자 현황>

투자자규모	신고건수	신규 법인수	신고금액 (US\$ 백만)	송금횟수	투자금액 (US\$ 백만)
대 기 업	311	124	2,109,304	464	1,507,000
중소기업	668	240	535,315	1,070	390,032
총 계	1,241	492	2,690,611	1,914	1,925,877

주: 2010년 12월까지의 실제투자 누계 기준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잠재력에 비해 투자진출 부진

- 우리나라 해외투자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신고건수기준 1.3%, 금액기준 1.2%로 인도의 잠재력에 비해 투자진출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며, 인도의 외국인투자유치 비중에 있어서도 0.58%(16위)에 불과
- 신고건수 기준, 중국(42,353건)의 2.9%, 베트남(5,302건)의 23%에 불과하며, 누적금액 기준으로는 미국(327억달러)의 5.8%, 중국(319억달러)의 6.0%에 불과

II. 우리기업의 對인도 투자 트렌드 변화

1. 제조업중심에서 서비스 분야로 진출 분야 확대

□ 서비스, 금융, 유통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진출

- 최근 고도성장으로 인해 인도 내수시장과 주요 산업이 급성장하고, 2010년 1월 한-인도 CEPA협정이 발효되면서 인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진출이 다양한 분야에서 늘어나고 있음
-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누계에서 제조업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4.1%이나 최근 5년 기준으로는 82.3%, 최근 3년 79.2%로 하락하였으며 2010년에는 73.8%를 차지함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투자비중 변화(투자금액 기준)>

	누계기준 (‘83년~‘10년)	2006	2007	2008	2009	2010	최근 3년 (‘08~‘10)	최근5년 (‘06~‘10)
제조업	84.1%	82.3%	88.8%	71.2%	89.4%	73.8%	79.2%	82.3%
서비스업	15.8%	17.7%	11.2%	28.7%	10.5%	25.9%	20.7%	17.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특히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통, 제약/바이오, ICT, 금융(은행, 보험, 자산운용)분야로의 진출이 두드러짐

□ 분야별 주요 진출사례

[유통분야]

- 인도의 2010년 소매유통시장규모는 3,530억달러로 전년 대비 12% 성장하였으며, 2014년에는 5,430억달러로 증가할 전망
- A. T. Kearney는 『세계 소매유통업 발전지수』 2010년 평가에서 인도를 3위로 평가함(2009년에는 1위로 평가)
- 단일브랜드 소매유통(지분 51%까지 사전승인을 거쳐 투자가능)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일부 개방되어 있으며 프랜차이즈, 도매유통, 제조업체의 자사물품 판매를 위한 직영점 운영은 가능
- * 멀티브랜드 소매유통은 외국인투자 불가
- 홈쇼핑에 경우는 별다른 제약이 없고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어 괄목할만한 투자성과를 거두고 있음

<CJ오쇼핑의 인도 진출 사례>

법인명	○ Star CJ Alive (이하 스타CJ)
투자배경	○ 급성장하는 인도 소매시장 진출 - 홈쇼핑 시장 규모 4년 내 연 10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
투자형태	○ 스타 TV와 50:50 합작투자(JV), 자본금: 5,500만달러
사업현황	○ 2010년 8월부터 24시간 홈쇼핑 방송 시작 ○ 방송 송출 지역은 뉴델리, 뭄바이 등 주요도시로 가시청 가구수는 약 1천만 가구 ○ 25세~45세의 중상층을 겨냥한 프리미엄 마케팅 전략 ○ 2011년도 매출목표 1,300억원
투자성과	○ 2010년 스타CJ 취급액 매월 30% 신장세 지속



<GS홈쇼핑의 인도 진출 사례>

투자액	○ 1,850만달러
투자형태	○ 지분투자 15% (HomeShop18)
투자성과	○ 투자시점 대비 매출 50% 신장 - 2009년 4,100만달러 → 2010년 6,200만달러 ○ 한국상품 판매 확대 - 2010년 3개 상품 → 2011년 10개 상품(매출 30억원 목표) ○ 주 1시간 한국상품 고정 프로그램 운영 예정

[제약/바이오 분야]

- 인도 제약시장은 2010년 기준 약 79억달러 규모(전년대비 14% 성장)이며, 이중 당뇨약품시장이 5억달러규모(17% 성장)로 전체 시장의 6.4%를 차지
 - 인도 정부의 공공 의료비 지출 확대 정책³⁾으로 향후 전망 밝음
 -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차츰 강화되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다국적 기업의 인도 제약사 M&A도 증가추세

<LG생명과학의 인도 진출 사례>

법인명	○ LG Life Sciences India				
투자배경	○ 향후 인도가 세계제약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 - 거대 인구, 소득증가, 의료 인프라 개혁이 기회요소				
투자액	○ 5,000만달러				
투자형태	○ 본사의 100% 자회사로 현지판매법인 설립 (2002년)				
투자성과	○ 매출 변화 추이 (US\$ 만)				
	연도	2007	2008	2009	2010
	매출액	6,400	8,300	9,000	10,800
	○ 주요제품: 신장질환 및 불임 치료제, 임상 대행 서비스 등				

3) 現 GDP의 1%에서 향후 2~3%로 확대

<SD의 인도 진출 사례>

법인명	○ SD Bio Standard Diagnostics India
투자배경	○ 인도는 말라리아, 뎅기 등 열대질환이 만연되어있고 검사장비 등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에, 피 한방울로 특 별한 장비 없이 15분 이내에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진 단시약의 수요가 높음
투자액	○ 200만달러
투자형태	○ 100% 단독투자
투자성과	○ 2010년 2천만달러 매출 달성(인도 신속 진단 업계 1위) - 2007년 제조 및 판매를 개시한 이후 매년 60~70% 성장 <SD의 뎅기열 진단키트> 

[ICT 분야]

- 인도의 IT산업은 S/W개발 및 아웃소싱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통신산업은 휴대폰가입자수 급증, 3G통신 도입, DTH서비스의 보급 등으로 장비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통신부문의 경우, 홈캐스트(셋톱박스), 현대디지털텍(셋톱박스), 케이비테크놀러지(스마트카드) 등이 최근 대규모 수주에 성공

<통신부문의 대규모 수주 사례>

○ 홈캐스트

- 디지털셋톱박스 제조업체인 홈캐스트는 2007년 인도에 진출한 후, 인도 5대 위성방송 사업자 중 2곳에 셋톱박스를 공급중
- 2010년 상반기, 바르띠 에어텔(Bharti Airtel)에 260억원 규모 셋톱박스 공급계약 체결

○ 현대디지털텍

- 2010년 4월 릴라이언스통신(Reliance Communications)과 44억원 규모의 디지털셋톱박스 주문서 계약 체결

○ 케이비테크놀로지

- 스마트카드관련 전문기업인 케이비테크놀로지는 인도 전자주민증카드 1차 사업⁴⁾ 물량 900만 장 중 30%인 270만 장을 수주 (2010.12월)

- 인도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SW개발센터 설립도 활발한데 삼성전자, LG전자, 만도 등이 인도내에서 SW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만도 소프트텍의 인도 진출 사례>

법인명	○ Mando Softtech India
투자배경	○ 인도의 Software 인력을 활용한 자사S/W 개발
투자액	○ 134만달러(자본금)
투자형태	○ 100% 단독 투자

- IT인프라 개발사업 분야에서는 삼성SDS의 뉴델리지하철 및 방갈로르 지하철 승차권 발매자동화 설비 시스템(AFC)공급이 대표적 사례임

4) 인도 정부는 2014년 이전에 국민의 60% 이상에게 전자주민증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금융 분야]

- 인도의 금융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가계 금융자산의 56%가 은행 예금이기 때문에 보험,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의 발전 잠재력도 높음
 - 인도정부는 자국의 금융산업보호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은행업(74%)과 보험업(26%)은 투자지분을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은행의 지점허가도 거의 내주지 않고 있음
- 은행분야
 - 영업 중인 은행은 신한은행이 유일하며 우리은행이 첸나이 지점 설치를 추진 중

<신한은행의 인도 진출>

- 1996년 조흥은행 뭄바이지점 개설로 인도투자가 시작되었으며 2006년 뉴델리지점을 개설하였고 2010년 첸나이 인근 Vellore (벨로르)지역에 3번째 지점을 개설함
- 기업 대출, 루피화 예금 유치, 지급보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도에서 연간 600만~700만달러의 이익을 창출

- 자산운용분야
 - 자산운용사중 유일하게 인도에 진출한 미래에셋은 2007년 11월 뭄바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며 5천여개의 판매채널을 활용하여 4만명 이상의 현지 고객들에게 인도, 중국, 한국 등 이머징 마켓 펀드를 판매하고 있음
 - 전체 운용자산 규모는 1,000억원 규모이며, 현지 부동산 개발 회사와 공동으로 부동산펀드 출시도 계획중
- 보험분야
 - 보험업은 투자가 26%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외국계 보험회사가 합작형태로 인도에 진출⁵⁾해 있으며,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도 현지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법인설립을 검토중임

5) 주요 합작사례는 ICICI-Prudential, Bajaj-Allianz, TATA-AIG등 임

2. 인프라개발붐을 활용한 인프라 분야 진출

□ 인도 인프라 시장 개요

- 인도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인프라관련 예산을 GDP의 9%이상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
- 최근에는 델리-뭄바이 산업대동맥(DMIC)⁶⁾에 대한 관심이 증가
-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누계에서 건설업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8%이나 최근 3년과 최근 5년 기준으로 각각 2.8%와 3.3%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6.9%를 차지함

<최근 5년간 對인도 건설업투자비율의 변동(투자금액 기준)>

누계기준 (‘83년~‘10년)	2006	2007	2008	2009	2010	최근 3년 (‘08~‘10)	최근5년 (‘06~‘10)
1.8%	7.4%	2.8%	1.8%	0.5%	6.9%	2.8%	3.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주요 진출사례

<두산중공업> (전력)

- 인도 진출 초기부터 전력분야에만 집중해 왔으며 향후 인도 전력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확보를 목표로 최근 인도내 3개 법인 (Doosan Projects India, Doosan Power Service, Doosan Babcock Engineering & Service)을 통합한데 이어 AE&E 첸나이웍스를 인수

6) 델리-뭄바이(1,500Km)간 화물전용철도(DFC)를 부설하고, 철도 인근에 총 24개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인도 최대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두산중공업의 투자진출 개요>

- 1986년 인도 최초 진출(항만하역설비 수주)
- 1998년 석탄화력발전시장 진출(콘다팔리 복합화력, 355MW)
- 2004년 초임계압발전시장 진출(시팻 발전소 1단계, 3×660MW)
- 2007년 문드라 화력발전소(UMPP) 수주(13억달러)
- 2010년 라이푸르 석탄화력발전소(11억달러) 수주
- 2010년 다헤즈(Dahej) 복합 화력발전소 설비(배열화수보일러)공급
- 2011년 AE&E 첸나이웍스(화력발전소용 보일러 제조사) 인수

<삼성엔지니어링> (플랜트)

- 2000년 뉴델리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한 삼성엔지니어링은 2006년 상반기 Samsung Engineering India라는 이름으로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인도 투자에 나섬
- 2008년에는 총 14억달러 규모의 에틸렌(Ethylene) 플랜트를 인도 국영석유회사인 오팔(OPaL: ONGC Petro Additions Ltd.)사로부터 수주

<14억달러 규모의 에틸렌 플랜트 수주>



자료: 삼성엔지니어링

- 삼성엔지니어링은 뉴델리 엔지니어링센터 운영을 통해 전세계에서 수주한 플랜트의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편 주요 전략으로 현지법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2010년 5월 첫 자체수주에 성공

<삼성엔지니어링 인디아의 자체수주(2010. 4)>

발주처명	○ Nagarjuna Oil Corporation Ltd(NOCL)
수주금액	○ 4,656만달러
프로젝트명	○ NOCL Diesel Hydrodesulphurization Unit
프로젝트개요	○ 연산 1백만톤 규모의 저유황디젤 생산 플랜트

<삼성건설> (지하철건설)

- 삼성건설은 그간 지하철건설시장에 집중해 오
 - 2001년부터 뉴델리 지하철 1, 2단계 6개 역사와 지하 터널공사, 14개 역사의 공조시설 등 모두 8건, 87억 달러어치를 수주
 - 뉴델리 지하철 공사 경험을 토대로 뭄바이 항만과 첸나이 지하철 공사 진출도 진행 중이며, 5억달러 규모의 80층짜리 뭄바이 초고층 빌딩 수주도 마무리단계에 있음
- * 한편 현대로템은 뉴델리지하철에 지하철전동차를, 방갈로르에는 도시 철도차량을 각각 공급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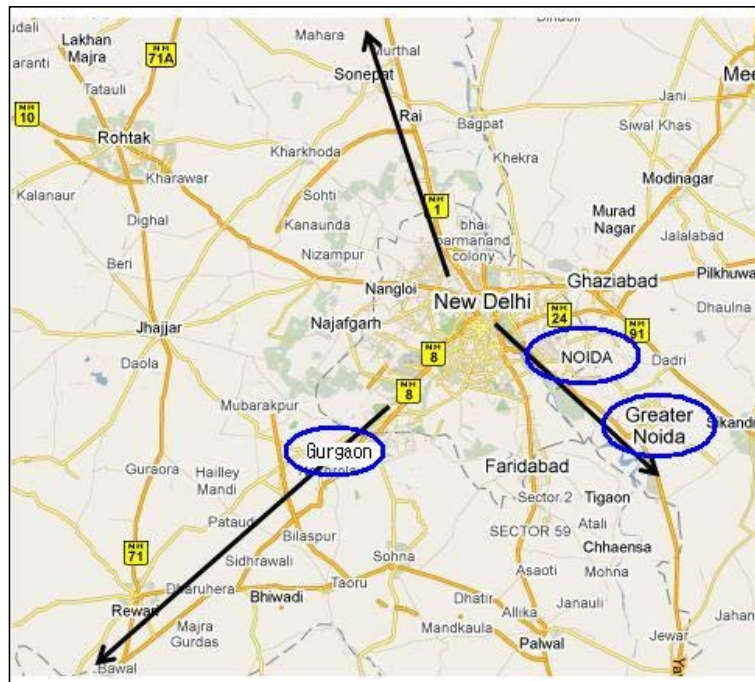


3. 대도시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투자지역 확대

□ 뉴델리지역의 변화

- 그동안 동쪽 노이다 인근⁷⁾과 서쪽 구르가온 인근⁸⁾에 제조업투자가 집중되어 왔으나 최근 공장부지난이 가중되면서 구르가온 서남쪽과 뉴델리 북쪽으로의 투자도 조금씩 활발해 지고 있음

<뉴델리 인근 제조업투자대상지의 확대>



자료: Google Map, 코트라 재구성

- 구르가온 서남쪽(하리아나주)은 고속도로(NH-8)를 통해 뉴델리와 연결⁹⁾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공단인프라가 우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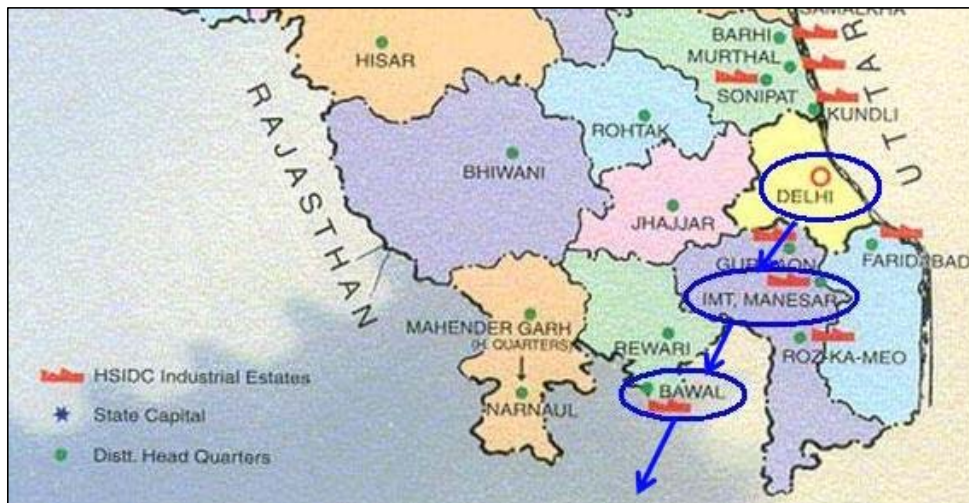
7) NOIDA와 Greater Noida를 포함

8) IMT Manesar(마네사르)와 Bawal(바왈)을 포함

9) 뉴델리와 구르가온 사이는 8차선 고속도로(expressway)로 연결되어 있으며, 뉴델리에서 서남쪽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NH-8고속도로는 마네사르, 바왈 등 공단지역과 뉴델리를 연결하고 있음

- 구르가온 서남쪽(하리아나주) 지역은 주개발공사(HSIIDC, Haryana State Industrial &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rporation)가 공단건설을 전담
- 주요산업단지로는 뉴델리 서남쪽에 위치한 IMT Manesar(마네사르)와 Bawal(바왈) Growth Center가 꼽힘

<구르가온 서남쪽으로의 확장>



자료: HSIIDC

① 뉴델리 서남쪽 주요 산업단지

<Bawal Growth Center 개요>

구 분	내 용
면 적	○ 1,200에이커
위 치	○ 뉴델리 서남쪽 90km Rewari 지구내 위치
입주기업	○ 입주대상기업: 자동차부품, 엔지니어링, 화학, 기계, 전자부품, 의약, 섬유산업 등 ○ 일본계: Mitsui Kinzoku, Asahi India Glass 등 ○ 구미계: Eurotherm Hema Radiators 등
특이사항	○ 마네사르지역이 포화되면서 최근 각광받고 있음
우리 진출기업	○ POSCO-IDPC, LS전선 등

<IMT Manesar 공단 개요>

구 분	내 용
면 적	○ 3,180에이커
위 치	○ 뉴델리 서남쪽 (뉴델리-자이푸르 연결지점) - 국내공항에서 34km, 국제공항에서 32km 떨어진 지점
입주기업	○ 자동차 및 IT부문이 대부분 - 마루띠 수주키(Maruti Suzuki, 인도 승용차 부문 1위), 혼다(Honda) 등 일본기업이 상당수 입주 - 인도 대기업 중에는 Videocon, HCL 등이 입주
특이사항	○ 1단계(1,750에이커) 개발 완료 ○ 3단계(600에이커)는 Maruti Suzuki 전용으로 개발 되며 2단계(180에이커)와 4단계(650에이커)는 개발중임 - 공단 포화로 추가적인 입주는 불가
우리 진출기업	○ 포커스텍(PCB), SD(진단시약), 동양기전(자동차부품) 등

② 뉴델리 북쪽 주요 산업단지

- 뉴델리 북쪽 30Km~40Km지점에는 하리아나주개발공사(HSIIDC)에서 조성한 Kundli(쿤들리), Rai(라이), Sonipat(소니파트) 등의 공단이 위치
- 교통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우리기업들의 진출은 부진하나 주변 공단이 포화됨에 따라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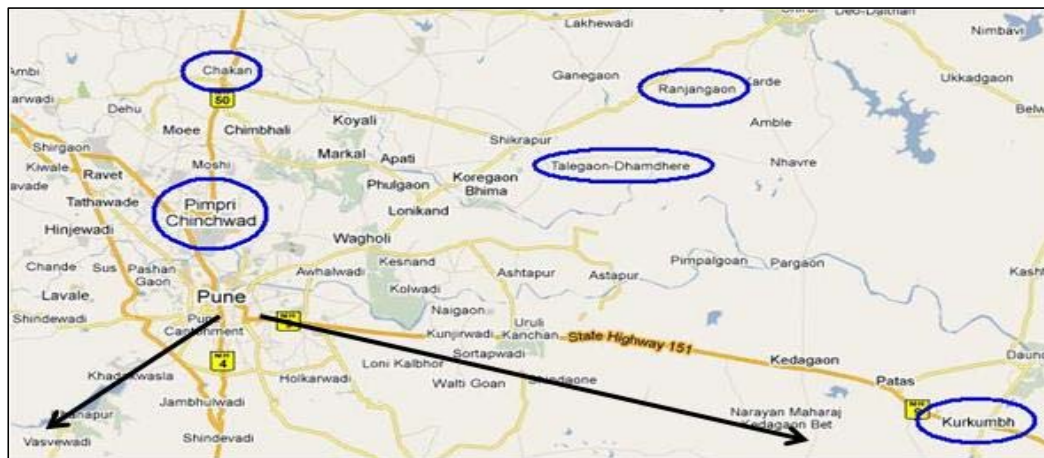
<Deerfos(디어포스)의 Sonipat공단 진출사례>

- 연마제 제조업체인 Deerfos는 당초 Manesar지역에 입주해 있었으나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2009년 Sonipat으로의 이전을 결정
 - HSIIDC로부터 9,000m²의 부지를 불하
 - 부지가는 입주대비 3배 올랐으며, 부지를 추가로 불하받을 예정

□ 뿌네지역의 변화

- 마하라쉬트라(Maharashtra)주의 주도인 뭄바이 인근지 중 제조업투자로 각광받는 뿌네(Pune)는 타타, 마힌드라 등 인도기업 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GM, 피아트, 벤츠 등 글로벌 기업들도 다수 입주해 있는 소형차 생산 허브로 자동차부품, 엔지니어링, 전기전자, IT 산업 등이 발달
- 뿌네는 인도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55%를 처리하는 뭄바이항과 인접해 있으며, 14개의 공과대학, 10개의 경영대학원을 포함해 100개가 넘는 대학이 위치해 있어 우수 인력이 풍부함
- 우리 기업중에는 GM대우협력사, LG전자(제2공장), 현대중공업 (굴삭기 등 건설기계 생산), 포스코 등이 진출해 있음

<뿌네지역 주요 공단과 확장방향>



자료: Google Map, 코트라 재구성

- 뿌네지역이 제조업유망지역으로 각광받으면서 마하라쉬트라 개발공사 (MIDC)의 신규개발공단에 대한 분양대기순번이 1200번을 넘을 정도로 부지확보난이 가열되자 외곽공단에 입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주정부는 기존 뿌네공단의 외곽지역을 개발하는 한편 나식과 아우랑가바드를 개발하여 뭄바이, 뿌네와 연결하는 4각형 클러스터를 구상중

- 포스코의 경우는 뿌네 서남쪽 95Km지점에 위치한 빌레바가드 산업단지에 철강 산업단지 건설을 진행중임
- 이러한 부지난으로 인해 뿌네 중심지로부터 100km이상 떨어진 Indapur 공단과 Baramati공단이 뿌네 인근의 새로운 투자지역으로 추천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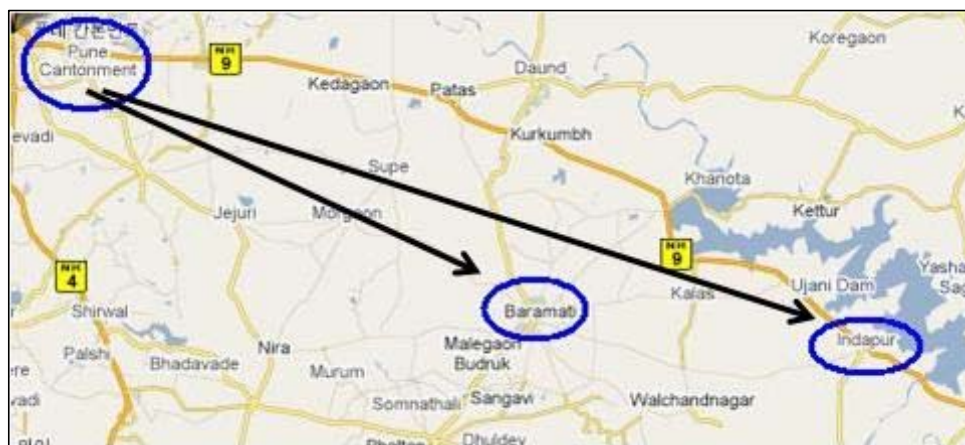
① Indapur공단

위치		○ 푸네 NH-9 도로상의 Solapur에 위치 ○ 푸네(130km), 뭄바이(227km) 동남쪽
면적	조성면적	○ 1,004에이커
	분양면적	○ 931에이커
분양가격		○ 일반: 400루피/m ² , 산업용: 200루피/m ²

② Baramati공단

위치		○ 푸네 동남쪽(100km)
면적	조성면적	○ 1,857에이커
	분양면적	○ 1,032에이커
분양가격		○ 일반: 900루피/m ² , 산업용: 175루피/m ²

<뿌네 외곽에 위치한 Indapur, Baramati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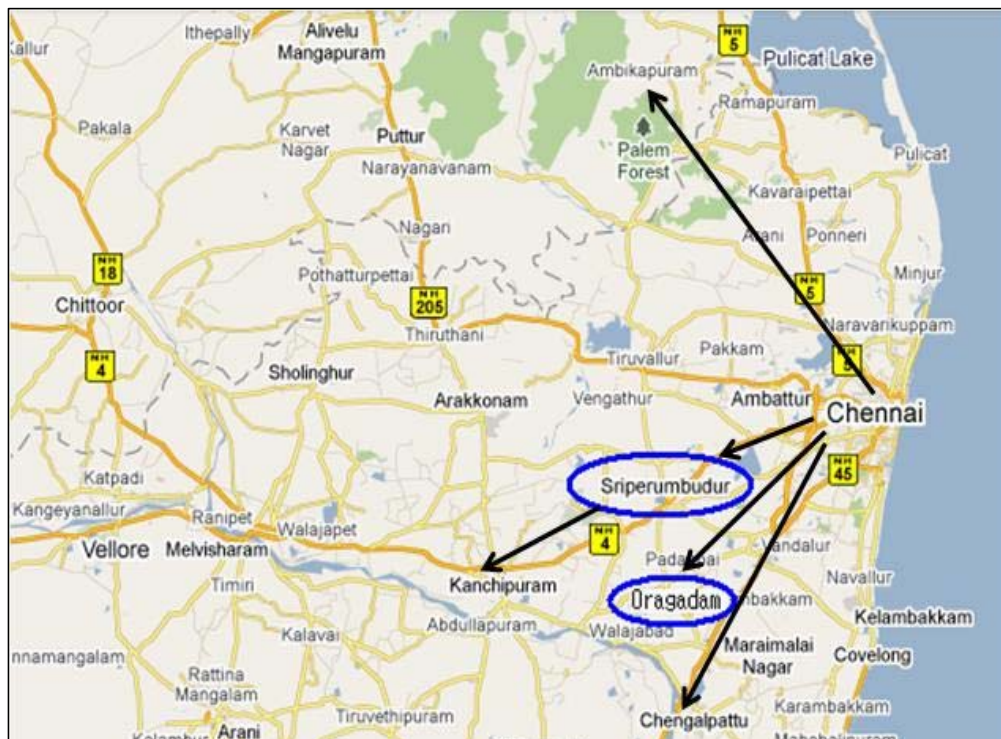


자료: Google Map, 코트라 재구성

□ 첸나이지역의 변화

- 타밀나두주는 2개의 개발공사(TIDCO¹⁰), SIPCOT¹¹)를 운영중이며 이 중 SIPCOT이 첸나이 인근에 개발한 공단들에 제조업투자가 집중되고 있음
 - 20여개의 SIPCOT공단 중, 첸나이에 근접한 Irungattukottai(이룬가투코타이), Sriperumpudur(스리페룸뿌두르), Oragadam(오라가담) 등에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노키아, 모토롤라, 델, 포드, 르노 등 글로벌기업들이 입주해 있음
- SIPCOT공단이 입주기업의 증가로 포화상태에 이르고 신규 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첸나이 인근 지역 중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Oragadam 공단으로 신규진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Mahindra World City, Sri City등 신규 산업단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첸나이 인근 제조업 투자대상지의 확대>



자료: Google Map, 코트라 재구성

10) Tamil Nadu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11) State Industries Promotion Corporation Of Tamil Nadu

① Sri City공단¹²⁾

- 첸나이 북쪽 55Km지점에 위치한 공단이며 타밀나두주와 안드라 프라데쉬주의 경계에 위치해 있음 (www.sricity.in)

<Sri City공단>



자료: Sri City

② Mahindra World City공단¹³⁾

- 첸나이 남쪽 45km지점(NH45)에 위치해 있으며, Sri City공단과 마찬가지로 수출기업용 특별경제구역(SEZ)과 내수용 제조시설로 구분되어 있음

③ Oragadam공단

- 첸나이 남서쪽 60Km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SIPCOT공단이 확장되어 신규 제조업투자가 활발
 - 3년 전만 해도 투자불모지였으나 도로망의 확충으로 첸나이와의 연결이 개선되어 르노-닛산(40만대 규모), 메르세데스, 다임러, TVS, Komatsu, Apollo Tires 등 주요 기업이 입주

12) 민간 개발사인 Sri City에서 개발하였으며 조성면적은 6,000에이커임

13) 인도 대기업인 Mahindra Group에서 개발하였으며 조성면적은 1,600에이커임

4. 기진출 대기업의 동시다발적 투자확대 전략

- 인도 투자진출에 인허가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내수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인도내 최소 2~3개의 제조거점이 있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최근 대기업들의 동시다발적 투자가 활발함
- 신규법인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누계에서 25.2%를 차지하던 대기업 투자는 최근 3년 기준으로 16.7%까지 줄어들었으나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아직도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들의 동시다발적 투자에 기인한 것임

<최근 5년간 대기업의 對인도투자비율 변화(투자금액 기준)>

	누계기준 (‘83~‘10)	‘06	‘07	‘08	‘09	‘10	최근 3년 (‘08~‘10)	최근5년 (‘06~‘10)
신규법인수	25.2%	19.1%	21.1%	15.6%	15.9%	18.5%	16.7%	18.4%
투자금액	78.3%	64.0%	67.2%	58.6%	82.1%	62.1%	70.0%	75.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주요 사례

① 포스코

- 포스코는 2010년부터 인도 사업을 ‘멀티 전략’으로 수정하고 동시다발적인 투자를 추진
 - 주력 프로젝트인 오리사주 일관제철소 프로젝트가 5년여간 지연되면서, 상·하공정 투자를 동시에 추진하고 진도가 빠른 프로젝트부터 힘을 싣겠다는 전략

<포스코의 주요 인도 프로젝트>

권역	주명	내용
동부	오리사(Orissa)	○ 1,200만톤규모 일관제철소 건설 ○ 페로크롬 합작사 설립
	자르칸드(Jharkhand)	○ 300만톤규모 파이넥스 제철소 합작 건설
서부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 철강산업단지 설립
	카르나타카(Karnataka)	○ 600만톤급 일관제철소 부지 선정
북부	하리아나(Haryana)	○ 코일센터 운영
남부	타밀나두(Tamil Nadu)	○ 코일센터 운영

자료: 각종 언론, 코트라 재구성

[포스코의 주요 인도사업]

■ 오리사주 1,200만톤 일관제철소 건설

- 동 프로젝트는 투자 규모(120억달러)나 중요도(철광석 6억톤 확보) 면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음
- 인도 환경부가 2011년 1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 고비를 넘긴 상황이나 사업추진까지는 광권확보, 이주민 보상 등 아직도 많은 장애물이 남아있음

<포스코 반대 시위>



자료: flashnewstoday.com(좌), nowpublic.com(우)

■ 카르나타카주¹⁴⁾ 600만톤 제2제철소 프로젝트

-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Karnataka)주에 70억달러를 투자해 600만톤 규모의 제철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1단계 300만톤)

■ 자르칸드주 300만톤 일관 제철소 프로젝트

- 여러 철광석 개발권을 확보하고 있는 인도 국영 철강회사 SAIL (Steel Authority of India Limited)과 합작하여 자르칸드주 보카로 지역에 300만톤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협상 중

■ 마하라슈트라주 철강산업단지 개발

- 냉연강판공장(연산 180만톤 규모), 아연도금강판공장(CGL¹⁵⁾, 연 45만톤 규모), 무방향성(無方向性) 전기강판 공장(연 30만톤 규모)으로 구성
 - * 자동차·가전용 고급소재를 생산하는 아연도금강판공장은 2012년 5월, 나머지 공장은 2011년 내 준공

■ 페로크롬 원료 확보를 위한 합작투자

- 스테인레스강의 주원료인 페로크롬 확보를 위해 2011년 1월 IMFA (Indian Metals & Ferro Alloys)와 생산 합작사 설립계약 체결
 - IMFA는 연 15만톤 규모의 페로크롬을 생산하는 인도 최대 업체로 양사는 이미 2010년 11월 인도 오리사주 추드와르에 연산 3만5000톤 규모 페로크롬 생산 전기로를 완공
 - * 포스코는 이 공장의 페로크롬 생산 전량을 25년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됨

14) 카르나타카주 북부지역인 벨라리-호스펫, 코팔에 철광석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기 때문에 인도 철강사업자인 JSW, 세계 1위 철강사인 아르셀로미탈 등도 이 지역에 대한 신규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15) Continuous Galvanizing Line

② 삼성전자

- 삼성전자는 95년 법인설립 이후 인도 가전시장에서 성장을 거듭
 - LCD TV, 휴대폰 등 고가시장에서 수위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 제조시설, 연구센터 등 인도 각지에 동시다발적 투자
 - 제조시설은 뉴델리 인근 노이다에 제1공장, 첸나이에 제2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갈로르에 글로벌 R&D센터(SISO¹⁶⁾), 노이다에는 S/W 개발센터 (SISC¹⁷⁾)를 운영

<삼성전자의 인도투자>

법인명	○ Samsung India Electronics Ltd.(SIEL)			
투자연혁	- 1995년 인도 진출 - '95.08: SIEL 설립 및 가전제품 영업 개시, 방갈로르 R&D Operation(SISO)개소 - '05.12: 휴대폰 생산 개시 - '07.11: 첸나이 공장 준공 - '10.11: 첸나이 공장 증설 결정			
투자액	○ 3억2400만달러(누적액)			
투자형태	○ 100% 단독 투자			
투자성과	○ 2004년 Golden Peacock Award 수상 ○ 2006년 Electronic Company Of The Year 수상 ○ 매출 변화 추이 (US\$ 억)			
		연도	2009	2010
		매출액	22	32
				2011(전망)
				45

- 삼성전자는 2010년 11월 첸나이 공장 증설에 35억루피¹⁸⁾(약 875억원)를 신규투자하기로 결정(가전, IT, 휴대폰 부문)
 - 첸나이 공장은 LCD TV, 세탁기, 에어컨 등을 생산

16) Samsung India Software Operation

17) Samsung India Software Centre

18) 삼성전자의 기존 첸나이공장 투자금액은 약 45억 루피

③ LG전자

- LG전자는 인도 진출 이래 가전시장을 석권해 왔으며, 세탁기(25~26%), 냉장고(28%), 전자레인지(40%) 부문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
- 뉴델리 인근 노이다(제1공장)와 뭄바이 인근 뿌네(제2공장)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LG전자는 최근 3억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결정¹⁹⁾
 - 신규 투자를 통해 기존 주력제품 이외에 휴대폰, LCD TV, 에어컨, 공기청정기, 정수기 분야에 입지를 강화하고 대도시 뿐 아니라 지방소비자를 공략한다는 전략

④ 현대자동차

- 1996년 인도 시장에 진출한 현대자동차는 '상트로'(한국 모델명 아토스)의 대성공에 힘입어 인도 승용차부문 2위의 자리를 차지
- 첸나이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공장은 당초 연 28만대 생산규모였으나 2008년 제2공장이 준공되면서 연 60만대 생산능력을 확보
- 첸나이 공장의 생산능력을 꾸준히 늘리는 동시에 디젤 엔진 공장 설립, R&D 센터(HMIE) 운영 등 적극적으로 투자규모를 확대

<현대차의 디젤공장 설립투자 >

-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첸나이 공단에 디젤엔진 공장 설립을 검토
 - 생산규모: 연 15만개, 투자액: 150억루피(약 3,750억원)
- 투자意向서를 주정부에 제출하였으며, 향후 MOU 체결 예정
 - 현대·기아차의 9개 해외공장 중 디젤엔진 공장을 따로 갖춘 곳은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이 유일

19) LG전자는 이번 신규투자를 통해 인도내 매출을 2010년 4조원 규모에서 2015년 11조 8천억원 규모로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투자금은 제3공장 설립 등에 사용될 예정임

⑤ GE

- 글로벌 기업 중 인도에 동시다발적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GE임
- GE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직접투자과 지분투자를 병행하고 있는데 인도 투자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금융, IT, 에너지 임

<GE의 부문별 인도투자 비율(좌) 및 인도기업 지분투자(우)>

부문	비율 ²⁰⁾	순위	기업명	비율 ²¹⁾
금융	24.7%	1	Infosys Technologies	11.2%
IT	18.5%	2	ICICI Bank	8.4%
Energy	10.5%	3	Reliance Industries	8.0%
산업기자재	10.2%	4	Tata Consultancy Services	4.3%
소비내구재	8.9%	5	ITC	4.3%
소재	8.1%	6	Housing Development Finance	4.2%
공공서비스	7.3%	7	Larsen & Turbo	3.7%
일반소비재	4.7%	8	Axis Bank	3.5%
건강용품	3.0%	9	Mahindra & Mahindra	3.4%

자료: GE India Equity 2010 4Q

- GE는 2011년 3월, 2억달러를 인도에 추가 투자하여 인프라 건설 장비 공장을 설립한다고 발표함

20) GE의 전체 인도투자에서 해당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

21) GE의 전체 지분투자 중 해당 기업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

5. 단독투자 일색에서 벗어나 합작투자가 서서히 증가

□ 다시 주목받는 對인도 합작투자

- 우리의 對인도 투자는 대부분 100% 단독투자 형태임
 - 현대자동차나 LG전자와 같이 인도진출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투자건이 모두 단독투자였던 반면 합작투자는 많은 실패사례가 보고되면서 인도 진출에 있어서 단독투자가 하나의 불문율로 지켜짐
- 인도에서 합작투자가 실패하는 이유는 인도의 경영환경, 법률, 기업가 문화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
 - 인도에서는 특별의결사항에 대해 75%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상대방이 26%의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독자적 결정이 불가
- 그러나 항공, 금융, 소매, 보험, 통신 등 많은 부문에서 인도정부가 단독투자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들 분야에 진출을 위해서는 유능한 파트너와 합작사를 설립하는 것이 필수
 - 단독투자가 가능한 분야라 하더라도 인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 이해 관계자가 많은 대형프로젝트, 인도파트너의 유통망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합작투자가 유용
 - 우리 기업의 단독투자비율은 최근까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0년에는 합작투자비율이 크게 증가했음

	2007	2008	2009	2010
단독투자비율	91.8%	86.4%	96.0%	79.4%
합작투자비율	8.2%	13.6%	4.0%	20.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주요 사례

① 화우테크

- LED조명업체 화우테크는 인도 전기회사 샤리카(Sharika Enterprises)와 합작법인 화우 인디아(Fawoo India) 설립에 합의²²⁾

22) 자본금은 약 1000만 달러규모

- 화우테크와 샤리카는 각각 2:8로 지분을 분할하며 화우테크는 판매액 중 5%를 로열티로 수취
- 2009년 화우테크와 공식 대리점 계약을 맺은 샤리카는 웨스트뱅크, 하리아나 등 세 개주에서 가로등 교체 사업 입찰에 참여중

<화우테크의 합작계약 체결식(2010.5)>



② 오텍

- 특수목적차량 전문기업인 오텍은 인도 자동차부품제조사인 암텍(Amtek Auto)²³⁾과 구급차, 소방차, 환경미화차량 등 특수목적차량 생산과 관련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합작투자에 대해서도 원칙적 합의
- 양 사는 2011년 4월 냉난방기 시스템공급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냉난방 시스템 생산을 위한 합작사 설립에 합의
- 기술이전에 힘입어 암텍은 특장차 분야에 신규 진출하게 되었으며 오텍은 인도 시장진출 교두보를 확보

③ 포스코

- 2011년 1월 페로크롬 인도 최대 생산사인 IMFA(Indian Metals & Ferro Alloys)와 합작사 설립계약 체결(포스코: 26%, IMFA: 74%)
- 인도 국영 철강회사 SAIL과는 자르칸드주에 300만톤 규모의 일관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를 협상 중
- 포스코 입장에서는 인도 국영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외국기업의 인도 기간산업진출 거부감을 불식시키고 광권확보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게 됨

23) 암텍의 2010년 매출규모는 약 1조6000억원임

④ 이랜드

- 이랜드는 인도 3위 의류 직물 제조업체인 무드라 라이프스타일 (Mudra Lifestyle)의 지분을 2011년내 51%에서 67%까지 확보키로 결정함(인수 금액은 430억원~530억원 규모)
- 우리기업 중 인도 패션회사를 인수한 첫 사례이며 이랜드는 이를 통해 인도 의류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

<무드라 라이프스타일>

- 1986년 설립된 의류 직물 제조업체
 - 2007년 인도 증시에 상장했으며, 상장 이후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 2009년 1,000억원 규모의 매출 달성
 - 2010년 10월 기준, 총자산 1,570억원, 시가 총액 510억원
 - 매출 가운데 직물과 의류 비중은 80대 20이며, 최근에는 OEM 방식의 의류수출도 활발함

⑤ 홈쇼핑 분야

- CJ오쇼핑의 경우는 스타TV와 50:50 합작투자를 통해, GS홈쇼핑의 경우는 HomeShop18의 지분인수(15%)를 통해 인도에 진출함

□ 주요 글로벌기업의 합작투자 동향

- 글로벌기업들도 인도시장 진출을 위해 인도기업과 합작투자하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단독투자가 불가능한 소매업 분야에는 굵직한 합작사례가 많음

<글로벌기업들의 최근 주요 합작 사례>

합작사	합작사례
Bharti(인도), Walmart(미국)	○ 2007년 8월 각각 50%의 지분으로 합작사 설립 - 2009년 'Best Price Modern Wholesale'이라는 이름으로 첫 매장 개장 (현재 5개매장 운영) - 바르띠는 전반적 운영 업무를, 월마트는 물류, 구매 등 지원 업무를 담당
Tata Coffee(인도), Starbucks(미국)	○ 스타벅스는 2011년 1월 타타커피와의 합작을 통해 인도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을 발표 - 타타그룹의 호텔과 체인점에서도 스타벅스 커피를 판매하는 계획을 추진
Mahindra(인도), Cisco Systems(미국)	○ 2011년 3월 클라우드 컴퓨팅을 포함한 신사업 분야에 합작사 설립을 합의 - 각각 220만 달러를 합작 회사에 투자
HCC(인도), VINCI Group(프랑스)	○ 인도 건설사인 Hindustan Construction(HCC)과 프랑스의 VINCI Group은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에서 합작투자를 합의
Minda Group(인도), Kosei Aluminum(일본)	○ 3,800만달러 규모의 알로이휠 합작투자 결정
Reliance Ind.(인도), BP(영국)	○ 릴라이언스의 인도내 석유/가스개발 합작 - BP는 릴라이언스 프로젝트 23건에 대해 지분 30%를 취득
Tata Steel(인도), Nippon Steel(일본)	○ 연 6만톤 규모의 제철소 합작 설립 - Nippon Steel(49%), Tata Steel(51%)

자료: 각종 언론, 코트라 종합

6. 중견기업의 투자증가

- 인도 투자진출은 그간 대기업위주였으나 최근 들어 중소·중견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음
- 2010년 신규 법인수는 대기업이 10개사인 반면 중소기업은 28개사

<2010년 투자자규모별 인도 투자건수 및 금액>

주투자자규모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대 기 업	28	10	102,257	111,343
중소기업	88	28	72,943	64,96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누계에서 중소기업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3%이나 최근 3년과 5년을 기준으로 하면 각각 29.5%, 32.9%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36.2%를 차지함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의 對인도투자비율 변동(투자금액 기준)>

누계기준 (‘83년~’10년)	2006	2007	2008	2009	2010	최근 3년 (‘08~’10)	최근5년 (‘06~’10)
20.3%	30.4%	29.6%	38.8%	17.3%	36.2%	29.5%	32.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주요 사례

① 유니온스틸

법인명	○ USI Service Center
투자배경	○ 삼성전자, LG전자 등 안정적 수요처의 확보
투자액	○ 1,500만달러
투자형태	○ GS글로벌과 합작(유니온스틸 75%, GS글로벌 25%)
투자계획	○ 연산 6만톤 임가공능력의 코일센터 설립(2011년 말)

② 한솔CSN

법인명	○ Hansol CSN Logistics India
투자배경	○ 인도 물류시장 진입 기반 조성
투자액	○ 45만달러
투자형태	○ 100% 단독투자(2008년 9월)
투자성과	○ 2010년 매출: 460만달러(이익: 10만달러)

③ 락앤락

법인명	○ Lock & Lock India Trading
투자배경	○ 젊은 층과 중산층의 증가로 밀폐용기 수요 증가
투자형태	○ 100% 단독투자
투자 성과	○ 매출: 매년 2배 가까운 매출신장세 기록 ○ 영업망 확보 - 홈쇼핑: Star CJ입점('10년 50만달러 매출 달성) - Homeshop18입점 - 인터넷 쇼핑몰(Ebay, Rediff) 입점 - 직영매장 개설(구르가온) 및 주요 쇼핑몰 입점
기 타	○ 마살라, 로띠용기 등 현지화 제품 출시 ○ 대도시를 포함, 2~3선 중소도시 공략 추진

④ 동진전자

법인명	○ Dongjin Electronic India
투자배경	○ 인도내 전자부품수요 증가
투자액	○ 120만달러
투자형태	○ 100% 단독투자
투자개요	○ 설립일: 2009년 6월 ○ 임직원수: 39명 ○ 생산품목: 키패드 및 인쇄회로 조립

- 이 밖에도 메디슨, 가온미디어, 세라젬, 이랜드, 한국타이어, 오스템 임플란트 등이 최근 인도에 진출한 바 있음

III. 결론 및 대응방향

□ 인도 투자진출의 고도화 진행중

- 그동안 불투명한 행정, 상이한 경영문화, 복잡하고 변동이 잦은 세무제도,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부진했던 대인도 투자에 최근 들어 다양한 시도와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투자의 고도화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한편으로는 미래에셋, CJ오쇼핑, 락앤락의 예에서 보듯이 과거 인도 진출이 부진했던 서비스 분야의 진출 확대는 인도 투자환경이 어느 정도 성숙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진출 기회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함

□ 인도 투자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진출전략 필요

- 인도 경제의 고도성장과 내수시장의 급격한 확대 그리고 인도 투자 환경의 성숙도를 감안할 때 인도에 대한 투자진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아직 인도에 진출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들은 인도 투자진출의 새로운 트렌드 점검을 통한 중장기적 인도 진출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인프라개발시장 진출: 인도의 인프라개발사업 대부분이 국내기업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민관협력방식(PPP)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PPP방식투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델리-뭄바이 산업 대동맥 프로젝트(DMIC), 뭄바이 도심재개발사업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 필요
- 투자대상지 선정: 뉴델리, 뿌네, 첸나이 중심지역의 공장부지난이 심한 만큼 외곽지역의 유망 공단 및 산업단지를 대체지로 활용하고 구자라트주나 안드라프라데쉬주와 같이 투자환경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신규지역으로의 진출도 검토가 필요

- 투자방식: 인도 투자진출은 통상적으로 단독투자방식이 추천되지만 모든 경우에 단독투자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단독투자가 불가능한 항공, 금융, 소매, 보험, 통신 분야 등은 합작투자가 필수적이며 단독투자가 가능한 분야라 하더라도 합작파트너의 유통망, 브랜드, 생산설비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나 외국기업에 대한 반감이 심한 기간산업 진출 시에는 합작투자 방식이 유용할 수 있음
- 이와 별도로 법, 노무제도, 조세제도, 투자비용, 입지 환경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현지거점의 확보 그리고 시내 전문가의 육성이 강조됨

☐ 인도에 대한 관심유지가 필수

- 일본은 최근 인도와 CEPA협정을 체결하였으며 EU-인도간 FTA도 금년 내 체결이 확실히 되고 있음. 이처럼 주요국의 인도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인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면서 투자기회를 노려야 할 것임

2011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BR (Global Business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Check it~! 2011년 해외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2011.1
11-002	한-미 FTA 발효에 대한 美 바이어, 현지 진출 한국기업 및 투자가 반응 조사	2011.1
11-003	남부 수단 독립 진전 현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2011.2
11-004	美 바이어가 뽑은 한-미 FTA 10대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2011.2
11-005	월드컵 특수, 카타르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동향	2011.3
11-006	위기의 리비아, 대체시장을 잡아라	2011.3
11-007	일본 · 인도 CEPA체결의 파급효과와 현지반응	2011.3
11-008	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시장 트렌드 1편(멕시코, 브라질편)	2011.3
11-009	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시장 트렌드 2편(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편)	2011.3
11-010	동 · 서남아 주요국의 노무여건 변화와 진출기업의 대응 방향	2011.4
11-011	한-페루 FTA 수출유망상품 및 진출방안	2011.3
11-012	일본 대지진 발생 한달 -일본 산업계 복구현황과 대일 수출입 영향-	2011.4
11-013	우리기업의 對인도 투자 트렌드 변화	2011.5

□ GIR (Global Issue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1 전망	2011.1
11-002	Post 무바라크 이집트 경제동향 및 전망	2011.2
11-003	한미 FTA에 따른 美 정부조달시장 진출 기대효과 전망	2011.2
11-004	선진국의 환경규제와 기업의 대응사례	2011.4
11-005	2011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 주요내용과 시사점	2011.4

□ KEB (KOTRA Executive Brief)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2011년 1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1.1
11-002	이집트 反정부 시위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11.1
11-003	해외바이어들이 전망하는 최근 이집트사태가 각국 경제 및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11.2
11-004	이집트사태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내역	2011.2
11-005	이집트 사태가 중동과 우리기업에게 미친 영향	2011.2
11-006	중동 북아 사태에 따른 세계경제영향과 향후전망	2011.3
11-007	일본 지진사태가 주요국의 산업에 미친 영향	2011.3
11-008	2011년 2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1.3
11-009	Post 중동민주화, 중동진출 새 활로 된다	2011.4

□ KOCHI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에 따른 우리기업의 동향 및 전망	2011.3
11-002	세수(稅收)로 보는 2011 중국경제	2011.3
11-003	중국 고속철도 시대와 新소비지도	2011.3

□ 외국인투자정책센터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한-EU FTA 발효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	2011.1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2011 지역별 진출전략	2011.1
11-002	MDB를 통한 해외 정보통신시장 진출전략	2011.1
11-003	스마트 TV 플랫폼 및 콘텐츠의 해외진출 방안	2011.1
11-004	SW 글로벌 마켓 클릭	2011.1
11-005	외국인투자기업, 한국과 通하다 - 대표 외국인투자	2011.2

	성공사례	
11-006	중국의 성시별 해외투자정책 연구	2011.3
11-007	중국의 금융지도	2011.3
11-008	주력품목별 수출시장 전망 및 확대 방안	2011.2
11-009	2010년 해외 고급인력 수요조사 결과보고서	2011.3
11-010	필리핀 노동법 핵심번역본	2011.3
11-011	GUIDE TO BUSINESS ESTABLISHMENT IN KOREA	2011.3
11-012	GUIDE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2011.3
11-013	Partnering for the Better Future - 30 Success Storie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2011.3
11-014	KOTRA 공동물류센터의 중장기 발전 방안	2011.3
11-015	세계 이러닝 전략지도	2011.4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2011 KOTRA 글로벌마켓 포럼	2011.1
11-002	2011 친디아 포럼	2011.1
11-003	글로벌 SW진출전략 워크숍	2011.1
11-004	2011 KOTRA 해외 공공조달 포럼	2011.1
11-005	2011 아프리카 포럼	2011.1
11-006	한-EU/한-미 FTA 기회와 도전 설명회	2011.1
11-007	2011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포럼	2011.1
11-008	Dow Chemical Global Alliance Project Series	2011.1
11-009	Global IT Channel Vision 2011 (대형 IT유통사 초청 구매전략 설명회)	2011.2
11-010	글로벌 인재유치 및 활용전략 세미나	2011.2
11-011	중동·북아프리카 시장 긴급점검 설명회	2011.3
11-012	2011 글로벌 공공병원 기자재 조달플라자	2011.4

작성자

◆ 아대양주팀	박민준 과장
◆ 뉴델리 KBC	차성욱 과장
◆ 뭄바이 KBC	박현성 과장
◆ 첸나이 KBC	장병석 센터장

Global Business Report 11-13

우리기업의 對인도 투자 트렌드 변화

발 행 인 | 조 환 익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1년 5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